

「유물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 북한강유역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토론문

손 준 호
한국고고환경연구소

이 글의 발표자인 홍주희(2009) 선생님은 이미 청동기시대 북한강유역의 취락 자료를 검토하여 석기 생산 시스템의 복원을 시도한 바 있다. 본 발표문은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토기, 청동기, 옥 등 목기를 제외한 도구 전반의 생산과 소비 문제를 상세히 다루어 논의를 더욱 진전시키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해당 지역 자료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여 적절한 토론을 이끌어 내기에는 역량의 부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도구의 생산과 소비에 대해서는 필자 또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나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한다. 부디 어리석은 질문이라도(愚問), 현명하게 답해주시면(賢答) 감사하겠다.

1. 토기의 생산

전국적으로 보아도 몇몇 유적을 제외하면 토기 제작 관련 시설의 확인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토기의 생산을 이야기하기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자료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토기에 남겨진 소성 흔적을 관찰하는 방법이 庄田 愼矢(2006)에 의하여 시도된 바 있다. 그는 청동기시대 전기의 개방형 야외소성에서 후기의 덮개형 야외소성으로 소성 기법의 변화를 상정하였으며, 그 배경으로 논농사의 보급에 의한 짚 활용의 확대를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강유역에서 토기 소성 유구가 잘 확인되지 않는 현상을 소성 흔적이 남지 않는 개방형 야외소성 기법의 적극적인 채용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또 그 원인으로 이 지역에 논농사의 보급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았음을 지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발표자는 예전에 단편적이거나 용암리 유적 출토 무문토기에 대한 소성흔 관찰 결과를 제시한 바 있는데(홍주희 2007, 528쪽), 구

체적인 내용의 언급과 함께 혹시 다른 유적 자료에 대한 추가 분석 시도가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알려주기 바란다.

2. 저부 투공 토기

발표문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저부 투공 토기의 용도를 시루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朴敬信 2005, 68-71쪽; 李亨源 2007, 175쪽). 오히려 투공 토기의 관찰 결과 직접 불을 맞은 흔적이 확인되어 시루로서의 사용을 부정하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쇼다신야 2008, 43쪽). 물론 이는 토기의 용도 전환을 보여주는 사례일 뿐이라는 주장도 있지만(손준호·최인건 2012, 51쪽), 아무튼 아직까지 저부 투공 토기의 용도를 시루로 한정할 만한 적극적인 증거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여러 가지 고고학적 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 성과에 의하면, 청동기시대에는 곡물을 찌서 먹는 방식이 그다지 보편적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金度憲 2011, 52쪽). 그런데 발표문에는 마치 북한강유역에서만 특별히 찌는 조리 방식이 적합하지 않은 것처럼 기술하면서, 이를 중기 후반 저부 투공 토기의 소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청동기시대에 찌는 조리 방식이 일반적으로 활용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해당 토기의 소멸 과정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이 필요할 것 같다.

3. 토기의 재사용과 재가공

발표자는 ‘재사용’을 본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 ‘재가공’은 다른 용도로의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상정하였다. 그런데 이 중 ‘재가공’을 용도와 관련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발표자의 개념 설정을 따르다면 파손된 유물을 다시 가공하여 동일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를 재가공이라고 표현할 수 없게 된다. ‘재가공’은 제작과 관련된 개념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는 ‘전용’이라는 적절한 용어가 존재한다. 한편, 발표자는 재가공과 관련하여 토기편 가운데 곡물이 커 토제품 제작이 용이한 부분을 공방에서 보관·제작하고, 원자재와 미완성품을 개별 주거로 분배하여 제작·완성하는 방식을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토제품 제작에까지 이러한 공정이 존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발표자가 제시한 재가공에 용이한 토기편이 유구에서 다수 출토되는 양상은 여러 유적에서 드물지 않게 관찰되며, 이는 대체로 보관 또는 사용된 대형 토기들이 파손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순한 대형 토기의 파손품과 발표자가 언급한 토기편 원자

재의 구분, 토기 재가공 공방의 인정 등이 가능한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논지의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도구 사용 과정에서 불규칙적이지만 일상적으로 파손과 재가공, 재사용이나 전용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4. 석기 생산의 획기

발표자는 공방이 출현하는 전기 후반을 석기 생산의 획기로 상정하였다. 물론 주거 내 제작 공간의 외부 분리 현상에도 나름대로 큰 의미가 반영되어 있겠지만, 보다 뚜렷한 획기는 소위 ‘천전리식 주거지’가 취락의 거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후기 단계가 아닐까 생각된다. 주지하다시피 천전리식 주거지의 내부에는 석기 제작 관련 시설로 이색점토구역과 작업공 등이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후기에는 공방은 물론이고 취락의 거의 모든 주거에서 석기 제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생활 유구는 기본적으로 점유 당시의 고고학적 맥락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물보다는 유구의 급격한 변화를 획기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구나 해당 유구의 변화가 석기 제작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석기 생산에 있어서 이보다 분명한 획기의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한편, 석촉·석부·석좌 등의 주요 석기가 대다수를 차지하여 생산되는 석기의 기종도 주요 석기에 집중되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다수의 유구에서 출토된 자료를 모으면 당연히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해당 석기들을 주요 기종이라 부르는 이 유가 평균적으로 출토량이 다수를 차지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석기의 생산이 주요 기종에 집중되었다고 주장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특정 기종에 대한 집중 생산인지 아니면 주요 기종 전반에 걸친 생산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최근에 그 결과가 제시된 바와 같이 유구 성격별 출토량 비교와 함께 유적별 출토량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趙大衍·朴書賢 2013, 26-27쪽).

5. 석기의 제작 방식

석기의 제작과 관련된 용어 사용에 있어서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벗어나는 개념이 확인된다. 먼저 고타는 석기를 대석에 대고 위에서 반복적으로 타격하거나 직접적으로 고타구로 두드려 깨는 방법으로, 마연에 걸리는 가공 시간을 줄이고 석기 전면을 고르게 갈기 위한 작업을 일컫는다(장용준 2007, 17-19쪽). 따라서 발표문에 제시된 조기의 석기 조정

방식은 타격 기법이라 할 수 있으며, 중·후기의 양상만이 고타 기법에 해당한다. 결국 양시기 제작 기법의 비교는 제작 공정상 서로 다른 단계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일반적으로 타격 이후 최종 마연 직전에 고타가 행하여지는 점을 볼 때, 조기와 중·후기 모두 타격 기법과 고타 기법이 함께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석축의 분할 방식에 대한 용어 사용에도 문제가 있다. 아마도 판상의 석재를 일정하게 분할·제작하는 방식은 찰절 기법, 간접 타격 방식은 양극기법을 활용한 선형석기 제작 기법을 의미하는 것 같다(黃昌漢·金賢植 2006, 305-306쪽; 黃昌漢 2009, 37쪽). 발표문에서는 후자의 기법이 적극적으로 채용된 이유를 제작 시간 단축과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작 기법이 이미 구석기시대부터 존재하는 점과 주로 능형축 제작에 이용되었음을 감안할 때 석축 형식의 변화에 맞추어 적절한 제작 기술이 활용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6. 석기의 다기능성

석기 기능 추정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발표자의 기존 연구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이다(홍주희 2011). 필자 또한 대부분의 주장에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이러한 견해의 수용이 석기의 기능 추정을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석기의 다기능성에 대한 문제는 연구자 대부분이 인지하는 것으로 특별히 새로운 지적은 아니다(이기성 2008, 32쪽). 석기는 기본적으로 다목적 이용이 가능하며, 실제로 출토 맥락이나 유물 자체의 관찰 결과에 의하여 이러한 증거가 확인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다양한 기능을 모두 밝혀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또한 제작 의도에 반영된 주요 기능이 존재하는 점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석기의 주요 기능에 입각한 여러 가지 해석도 충분히 나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기존의 견해를 무비판적으로 답습하여 석기의 기능을 한두 가지로 한정하는 것은 해석을 지나치게 단순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발표자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다양한 기능 상정을 바탕으로 한 보다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7. 반 공동 생산·소비 체계

발표자가 상정한 ‘반 공동 생산·소비 체계’의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청동기시대 사회의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 극단적인 공동 혹은 개인 단위의 활동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 공동 체계의 설정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데 발표문에는 옥이나 청동기와 같은 특수재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도구와 동일한 생산·소비 체계를 따른다고 보고 있어, 해당 체계의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 적어도 일상재와 특수재 정도를 구분할 수 있는 개념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반해 ‘반전업적 생산’이라는 용어는 보다 구체적인 개념이 성립되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미 옥이나 마제석검의 생산에 대하여 반전업적 전문 공인 집단의 존재가 상정된 바 있으며(고민정·Bale 2008, 102쪽), 상대적으로 제작이 쉬운 석도에 대해서는 왼손잡이용 삼각형석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근거로 어느 정도의 전문적인 제작 집단이 추정되기도 하였다(손준호·조진형 2006, 27쪽). 발표문에서는 이와 관련된 증거들이 잘 확인되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반대되는 증거 역시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가능성 자체를 무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참고문헌

- 고민정·Bale, Martin T., 2008, 「청동기시대 후기 수공업 생산과 사회 분화」 『韓國青銅器學報』 2.
- 金度憲, 2011, 「원사고대의 목제 절굿공이 검토」 『湖南考古學報』 38.
- 朴敬信, 2005, 「韓半島 先史 및 古代 炊事道具의 構成과 變化」 『선사고대의 생업경제』 제9회 복천 박물관 학술발표회.
- 손준호·조진형, 2006, 「고배울 현미경을 이용한 반월형석도의 사용흔 분석」 『야외고고학』 1.
- 손준호·최인건, 2012, 「무문토기 취사흔의 관찰과 해석」 『考古廣場』 11.
- 쇼다신야, 2008, 「青銅器時代 土器의 炊事 痕迹」 『炊事の 考古學』, 서경문화사.
- 이기성, 2008, 「일본 조몽·야요이 전환기의 석기 변화」 『韓國上古史學報』 59.
- 李亨源, 2007, 「盤松里 青銅器時代 聚落의 構造와 性格」 『華城 盤松里 青銅器時代 聚落』, 한신대학교 박물관.
- 장용준, 2007, 「先史時代 石器의 分別과 製作技法」 『考古廣場』 1.
- 趙大衍·朴書賢, 2013, 「청동기시대 석기 생산에 대한 일 고찰」 『湖西考古學』 28.
- 홍주희, 2007, 「出土遺物」 『龍岩里』, 江原文化財研究所.
- 洪周希, 2009, 「북한강유역 청동기시대 취락의 전개와 석기제작시스템의 확립」 『韓國青銅器學報』 5.
- 홍주희, 2011, 「청동기시대의 생활상과 석기의 기능영역」 『人類學考古學論叢』,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개설40주년 기념논총.
- 黃昌漢, 2009, 「青銅器時代 石器 製作의 兩極技法 研究」 『韓國上古史學報』 63.
- 黃昌漢·金賢植, 2006, 「船形石器에 대한 考察」 『石軒鄭澄元教授 停年退任記念論叢』, 釜山考古學研究會.
- 庄田愼矢, 2006, 「青銅器時代 土器燒成技法의 實證的 研究」 『湖南考古學報』 23.